



◇6월 30일 카네기홀에서 열린 영산재 보존회 공연은 재미교포와 현지인들에게 한국 불교문화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산재 카네기홀 공연 '갈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문화예술 5000년'

세계 음악인이라면 꼭 한번 서보기를 갈망하는 무대,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불교전통 영산재가 처음으로 선을 보여 재미교포와 현지인들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6월 30일 밤 11시 미국 뉴욕 카네기 메인홀, 2600석 규모의 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국인의 정신과 노력이 존경을 금할 수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전통문화연구원(원장 인남순)이 새 천년을 맞아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한 이번 공연은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문화예술 5000년'이라는 주제로 아래 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시연

과 중요무형문화재 차용무 이수자 인남순씨의 차용무 공연도 펼쳐졌다. 또 우리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오늘에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불자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의 우리 옷도 선보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범패(음악), 장엄(미술), 작법(무용)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날 공연은 영산재 전수교육 보조자 일운스님과 이수자 능화스님 등 11명이 부처님께 범을 청하는 거불을 시작으로 사다리나 바라춤과 사방요신 나비춤, 법고춤, 요삼 등 화려하면서도 엄숙을 잃지 않은 춤사위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범패연주로 극적인 감동을 더했다.

영산재보존회는 이날 공연에 이어 1일과 2일에는 뉴욕 전당사에서 미처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불자들을 위한 특별공연도 펼쳐, 멀리 미국땅에서 생활하는 교포들에게 우리문화의 중요성을 한 아름씩 안겨줬다. 특히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뉴욕한인회 교포들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산 교육의 장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영산재 이수자 능화스님은 "해외에서 영산재를 공연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보이는 우리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 놀란다"면서 "오는 10월 경에도 영산재 이수자인 동희스님과 제자들이 미국내 4개 대학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해외공연시 교포들을 위한 단기 전통문화교실도 열고 싶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ele@buddhopia.com)

학춤수행 20년 자료집 펴냈다

백성스님 '울산학춤연구'

"우리 전통 춤의 발디딤새도 불교무용의 영향을 받았고, 학춤도 원래 절에서 동자들이 추던 춤에서 유래된 거지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한 학춤을 20년 넘게 연구해 온 백성 스님(울산학춤보존회장)이 최근 <울산학춤연구>(울산학춤보존회)를 펴냈다. 할아버지 김두식, 아버지 김덕명 씨에 이어 3대에 이어지는 양산사찰학춤의 전승가문에서 태어난 스님은 80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불교전통강원을 졸업했으며, 학춤연구와 전승에 매진해 왔다. "한국 전통학춤은 불교예술에서 발원되어, 민속무와 궁중무의 학춤으로 전개됐다"는 스님은 "한국인의 눈과 마음이 그려낼 수 있는 삼라만상의 형상을 학의 움직임에서 포착하고, 불교적 가르침을 인간의 몸짓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학춤"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에서 스님은 울산학춤의 107가지 동작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 일반인들도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며, 부록으로 양산사찰학춤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를 실었다. 이은자 기자



◇울산학춤 동작을 연습중인 백성스님.



◇전북불교문우회는 산사시화전과 시낭송회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전국모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만해스님 생애와 시문학 조명

전북불교문우회 '다르마' 3호 펴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수행하며, 삶과 창작활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전북불교문우회(회장 주봉구)가 문집 <다르마> 제3호를 펴냈다. 전북불교문우회는 시, 소설, 수필, 평론분야에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활동중인 기성 문인 37명을 중심으로 지난 96년 11월 결성됐다. 그동안 4회 계절모임을 갖고, 창작의 어려움과 불자로서의 신행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활발하게 움직여 왔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만해스님의 생애와 시문학'을 조명했다. 스님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을 통해본 선(禪)의 세계와 그밖의 대표 작품을 통해 시어로 표현된 스님의 사상과 숨은 뜻을 새로운 측면에서 해석했다. 특집과 더불어 '목어' '차를 달이며' 등 회원들의 시와 수필, 단편소설 등 70여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전북불교문우회 김현조 사무국장은 "산사 시화전과 시 낭송회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불교문학을 불자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한편 전국적 모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문·학·단·신

화폭에 담은 '불교 전통과 현대'

전통과 현대를 오가며 불교적 심미세계를 화폭에 담아 온 화가 한승구씨가 제5회 개인전을 22일~26일 부산 국제 문화센터 제2전시실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현한 '석가모니 영산회상도', '약사후불도' 등 전통 불화와 정확한 묘사로 제작한 영정 그림, 석굴암 제자상을 흉판에 그린 '신라의 향기' 연작, '만행' '변력'과 같은 컴퓨터 합성작품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불교미술의 경지를 모색하고 있다. (051)500-5381 ◇한승구작 '만행'

신화, 그 영원한 생명의 노래전

우리 민족 원형의 생명력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신화, 그 영원한 생명의 노래'전이 22일~9월 1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신의 다양한 모습', '매개자', '주술과 생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한민족의 기층생활에서 강한 생명력을 발휘해 온 신화와 주술의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게 된다. (02)580-1300

백남준 작품 1백여점 볼 기회

지난 불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개관 이래 최대 관람인파를 불러모아 화제가 된 바 있는 '백남준의 세계전'이 21일~10월 29일 로댕갤러리와 호암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는 레이저 작품, 비디오 설치 및 조각, 프로젝션 등 100여점의 작품이 동시 전시된다. (031)320-1801

전화카드에 새긴 '아름다운 금강산'

하늘과 맞닿은 천봉만학의 자태로 미술·문학 작품의 주제가 되어온 금강산. 그 아름다움을 이제 공중전화카드로 만나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지진길)은 최근 금강산을 소재로 한 공중전화카드를 발행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문화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98년부터 (주)한국통신카드의 협조를 받아 '한국의 미'를 주제로 박물관 소장유물 공중전화카드를 발행해 왔다. 이번에 발행된 전화카드는 경제 정선

의 '정양사도(正陽寺圖)'를 비롯해 '서산대사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청화백자절채산형항로' 등 금강산을 소재로 한 4종 350단장이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작년 여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해 호응을 받았던 금강산 특별전 '아름다운 금강산'에 전시한 200여 작품 가운데 엄선한 것들이다. 각 카드마다 이들 문화재의 제목과 크기, 시대 등 간단한 설명이 곁들여 있다. 박물관 홍보담당 홍선옥씨는 "현대 전자기기의 영향으로 공중전화 사용자가 줄었지만 '한국의 미' 시리즈를 수집하는 사람이 많아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문화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들을 계속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원진 기자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소 라즈니쉬 경의 손민규 옮김 값 8,500원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소 라즈니쉬 경의 손민규 옮김 값 11,000원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소 라즈니쉬 경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 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말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진정으로 보기 드문 뜻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제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5. 범구경 I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조주	21. 내 사랑 인디아
02. 탄트라 秘典 II	06. 범구경 II	10. 심우도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남전	22.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03. 탄트라 秘典 III	07. 금강경	11. 선심명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마조	19. 법의 연꽃 아규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04. 탄트라 秘典 IV	08. 반야심경	12. 허안 연꽃(대사 강론)	16. 마음을 버려라 일제	20.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24.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책의 색은 송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pub@chollian.net
tel. 927-2831-4 fax. 924-3236

라이프파사
리플